

# 거주형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최 연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02년에 7.9%에 이르렀고 2026년이 되면 약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의 거주형태도 변하여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은 1995년 13.2%에서 1998년에는 20%를 넘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이런 사회현상은 최근 1세대 가구나 독신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전반적인 거주형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거주형태는 노인의 일상의 모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적 특성이다. 거주형태는 단순히 노인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외형적 구조의 의미를 넘어서, 각 사회의 세대관계 및 가족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규범,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거주형태가 결정되는 과정에 따라 노인생활의 만족정도가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자녀와 함께 살면 오히려 노부모의 생활만족 수준이 낮아지고 (Pillemer & Suitor, 1991),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

면 노인의 생활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lenn & McLanahan, 199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주형태와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일관성 없고 다양한 결과를 내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Joo & Yoon, 1993; Cho, 2002).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Kim & Park, 2000; Kim & Jung, 2001)가 있었는데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생활만족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Kim, 1997; Kim et al., 1998)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도리로 생각해 왔던 한국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서양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주형태와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증명한 연구들의 결과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일 경우에도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인은 생활 만족을 증진시키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보고(Kim & Jung, 2001)가 있다.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동일한 거주형태라도 특성들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거주형태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가 노인의 경제 수준이나 여가활동의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Lee와 Kim(1999)의 연구에서 실제적으로 단독가구 노인들은 자녀들과 별거생활에서 오는 고독감의 지속으로 우울을 초래하여 노인의 정신건강뿐만

\*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yeonhee@dhu.ac.kr)  
투고일 2005년 4월 27일 심사회의일 2005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3일

아니라 신체건강의 약화를 가져와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특히 대인관계가 극히 제한적인 독거노인인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일반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심하며, 이러한 우울은 주관적인 정서적 기대 평가인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여가활동, 가족결속력, 경제수준,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Kim, 2003; Lee & Kim, 1999). 우울한 노인과 우울하지 않은 노인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우울하지 않은 노인에서는 성인자녀와의 동거율이 42%인데 반해 우울한 노인은 11%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Park, 1993).

국내에는 자녀와의 동별거 주거형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소수의 실증연구들(Park & Kwon, 1989; Kim et al., 1998; Cho et al., 1998)조차도 거주형태별로 노인집단간에 생활만족도 혹은 우울감 등의 평균값을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거주형태와 생활만족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거주형태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노인의 다양한 상황적 요구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준, 여가활동 등 노인의 상황적 특성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극히 부족하며, 소수의 연구들마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m, Bae, Lee와 Cho(199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 정도에 따라 거주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ho(200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의 경제상태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에 주목하여 거주형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노인의 삶의 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으로 종속 변수화하고, 거주형태와 생활만족도와 우울감과의 관련성에 있어서의 경제상태 및 여가활동과의 상호작용을 분석모델에 포함하여 탐색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녀와의 동별거의 거주형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노인요양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거주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 3) 대상자의 거주형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자녀와의 동별거의 거주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우울감 정도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고, 거주형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 K시에서 주관한 지역 노인복지실태조사에 참여한 60세 이상의 노인중 적어도 한명 이상의 생존자녀가 있는 노인 371명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녀와의 별거노인은 성인자녀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노인, 자녀와의 동거노인은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구분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여가활동 : Moon(2000)의 노인 여가활동 측정도구(Geriatric Leisure Activity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19문항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을 사회문화활동, 자기개발활동, 가족중심활동, 교육·무위해소활동, 소일활동의 5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0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4$ 이었다.

- 2) 생활만족도 : Stones와 Kozma(1980)가 노인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개념인 생활만족, 행복, 사기 등을 기초로 하여 만든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for Happiness(MUNSH) 척도를 기초로 하여 Yoon(1996)이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한 20문항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긍정적 정서 항목과 부정적 정서 항목이 각각 4개와 긍정적 일상 경험 항목과 부정적 일상 경험 항목이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1$ 이었다.
- 3) 우울 : Yesavage 등(1982)이 개발한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단축형을 Ki (1996)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으로 고안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가 용이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가 가능한 검사로서, 대상자가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척도로서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당 0점 또는 1점을 부여하였으며, 총점은 0점 ~ 10점까지이다. Yesavage 등(1982)은 GDS의 총점에 따라 6.7점 이상을 우울상태로 간주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9$ 이었다.

####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방법 및 절차의 일관성을 위하여 자료수집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조사원 10명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조사원들간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기록의 일치성을 높일도록 하는 사전 회합이 있었다. 그 후 조사원이 노인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문지의 문항을 읽어주는 개별적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었다.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누설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5명의 노인들은 참여를 꺼려했

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4)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대상자 371명중 일반적 특성 및 그 특성들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 자녀별거 노인은 남자노인이 87명(41.23%), 여자노인이 124명(58.77%), 자녀동거노인은 남자노인이 69명(43.13%), 여자노인이 91명(56.87%)으로 두 집단 모두 여자노인이 더 많이 차지하였다. 연령에서는 자녀별거노인에서는 75세 미만에서 151명(71.56%), 75세 이상이 60명(28.44%)이었으며, 자녀동거노인에서는 75세 미만이 74명(46.25%), 75세 이상이 86명(53.7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7.341$ ,  $p=.027$ ). 교육수준에서는 자녀별거노인과 자녀동거노인 모두에서 초등이하 졸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관적인 경제상태에서는 자녀별거노인에서는 하위수준이 160명(75.83%), 자녀동거노인에서는 중위수준이 84명(5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6.997$ ,  $p=.001$ ). 종교에서는 자녀별거노인과 자녀동거노인 모두에서 불교가 각각 98명(46.45%), 85명(53.13%)으로 가장 많았다. 여가활동에서는 자녀별거노인의 평균점수 3.04점으로 자녀동거노인의 평균점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71)

Variables	Class	Living separate		Living together		x <sup>2</sup> or F(p)
		n(%) or M(SD)	n(%) or M(SD)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87(41.23)	69(43.13)			354(.634)
	Female	124(58.77)	91(56.87)			
Age	75<	151(71.56)	74(46.25)			27.341(.027)
	75≥	60(28.44)	86(53.75)			
Educational level	No formal	65(30.81)	35(21.88)			13.857(.084)
	Ele school	90(42.65)	84(52.50)			
	Middle school	43(20.38)	31(19.38)			
	High school	13( 6.16)	10( 6.25)			
Economic status	High	3( 1.42)	17(10.63)			6.997(.001)
	Middle	48(22.75)	84(52.50)			
	Low	160(75.83)	59(36.88)			
Religion	None	30(14.22)	40(25.00)			13.494(.218)
	Protestant	47(22.27)	37(23.13)			
	Catholic	14( 6.64)	16(10.00)			
	Buddism	98(46.45)	85(53.13)			
	Others	2( 0.95)	2( 1.25)			
Leisure activity		3.04( 0.42)	3.98( 0.67)			2.011(.001)
Life satisfaction		2.74( 0.47)	3.04( 0.54)			1.599(.008)
Depression		5.01( 2.82)	4.87( 3.13)			-2.603(.096)

<Table 2> Correlations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N=371)

Variables	1	2	3	4	5	6	7	8
1. Living arrangement	1.000							
2. Gender	.043	1.000						
3. Age	.196**	-.062**	1.000					
4. Educational level	-.029	-.268**	-.329**	1.000				
5. Economic level	.214***	-.063*	-.071*	.202***	1.000			
6. Leisure activity	.081*	-.291***	.024	.269***	.73**	1.000		
7. Life satisfaction	.211***	-.047	-.063	.137***	.426**	.136**	1.000	
8. Depression	-.039	.063	.127**	-1.48**	-.303**	-.072**	-.391**	1.000

\* p<.05 \*\* p<.01 \*\*\* p<.001

3.9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활동을 보였다 (F=2.011, p=.001).

2. 대상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의 차이와 상관관계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생활만족도는 자녀별거노인의 평균점수 2.74점으로 자녀동거노인의 평균점수 3.04점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599, p=.008$ ). 우울감은 자녀별거노인의 평균점수 5.01점으로 자녀동거노인의 평균점수 4.87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위계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분석에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거주형태( $r=.211, p<.001$ ), 교육수준( $r=.137, p<.001$ ), 경제상태( $r=.426, p<.01$ ), 여가활동( $r=.136, p<.01$ )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우울감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연령( $r=.127, p<.01$ )과 정적으로, 교육수준( $r=-.148, p<.01$ ), 경제상태( $r=-.303, p<.01$ ), 여가활동( $r=-.072, p<.01$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우울( $r=-.391, p<.01$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3. 대상자의 거주형태가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Table 3>, <Table 4>). 모델 I은 자녀와의 동·별거 자체가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어떻게 미치는 가를 보여준다. 모델 II는 성별, 연령, 교육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한 분석 모델로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려되었을 때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자녀와의 동·별거의 영향력이 어떠한 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 자녀와의 동·별거형태와 경제상태 및 여가활동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것인데, 이는 자녀와의 동·별거형태와 생활만족도와 우울감과의 관련성이 노인의 의존성 정도를 나타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 진단 및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수행한 Dubin-Watson 검정의 값이 1.91로 무자기상관(No Auto-correlation)으로

<Table 3> Regression of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N=371)

Variables	Model I b(β)	Model II b(β)	Model III b(β)
Constant	2.713	.124	-.004
Living arrangement	.362(.168)***	.062(.043)	.478(.253)
Gender		.261(.062)	.149(.086)
Age		.031(.018)	.010(.073)
Educational level		-.027(-.005)*	.263(.143)*
Economic status		.417(.502)**	.463(.512)**
Leisure activity		.488(.425)**	.056(.062)**
Living arrangement * Leisure activity	-	-	-.073(-.051)
Living arrangement * Economic status	-	-	-.0112(-.182)
R <sup>2</sup>	.027	.269	.272
R <sup>2</sup> Variance	-	.312**	.008
F-value	21.6**	53.1**	41.7**

\* p<.05 \*\* p<.01

<Table 4> Regression of variables on depression (N=371)

Variables	Model I b(β)	Model II b(β)	Model III b(β)
Constant	5.016	10.272	10.160
Living arrangement	-.192(-.056)	-.096(-.027)	-.122(-.061)
Gender	-	-.154(-.086)	-.141(-.073)
Age	-	-.010(-.082)	-.012(-.062)
Educational level	-	0.29(.021)	.043(.027)
Economic status	-	-.420(-.441)***	-.271(-.371)***
Leisure activity	-	-.027(-.041)***	-.025(-.043)***
Living arrangement * Leisure activity	-	-	.510(.247)*
Living arrangement * Economic status	-	-	.096(.129)
R <sup>2</sup>	.004	.203	.194
R <sup>2</sup> Variance	-	.276***	.008*
F-value	2.97	32.6***	26.8**

\* p<.05 \*\* p<.01 \*\*\* p<.001

나타났고, 영향력 진단으로 수행한 Cook's D 검정의 모든 측정값이 0.1이하로 나타나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50미만으로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1) 대상자의 거주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 거주형태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I에서는 자녀와의 동거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분석모델에 포함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거주형태의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졌다. 모델 II에서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 경제상태 및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형편이 좋고,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III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교육수준, 경제상태, 여가활동 변수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거주형태 변수는 모델 III에서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여가활동과 경제상태와의

상호작용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본 자료의 분석결과 자녀와의 동거가 외형적으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의 상황적 특성을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니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대상자의 거주형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 거주형태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I에서는 자녀와의 동거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분석모델에 포함한 모델 II에서도 거주형태가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경제상태와 여가활동은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형편이 좋고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우울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III에서도 노인의 경제상태와 여가활동 변수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다. 거주형태 변수는 모델 III에서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여가활동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었다.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모델 III은 그렇지 않은 모델 II와 비

교할 때, R<sup>2</sup> 변화량이 유의미한 수준(p<.05)에서 변화가 있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자녀와의 동별거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자녀와의 동별거형태의 영향이 노인의 경제상태와 여가활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대상자의 자녀와의 별거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자녀동거노인의 생활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우울감에서는 자녀와의 별거노인이 자녀와의 동거노인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과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점에 대해서는 서구의 연구들은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별거형태가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동거부양을 규범화해 온 한국과 달리, 성인자녀의 심리적, 사회 경제적 독립과 별도주거를 규범화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가 비규범적인 현상이다. 서구사회에서 최근 자녀동거가 증가하게 된 것은 높은 실업률 및 이혼율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젊은 층의 삶과 직접 연결되면서 일단 부모 품을 떠났던 성인자녀가 부모의 집에 되돌아와 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Mancini & Blieszner, 1989). 그래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서구의 연구들(Pillemer & Suito, 1991; Aquilino & Supple, 1991; Ferrans & Powers, 1985)은 대부분 동거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와의 동거는 노부모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건강악화 등 노부모의 필요에 의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동거가 노인의 의존성의 증가를 의미하며 독립성 규범에 어긋나므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지적된다(Umberson, 1992). 따라서 서구에서는 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와 자녀세대 중 어느 쪽의 필요에 의한 것이든, 서구의 핵심가치의 하나인 독립성, 호혜성의 규범에 위배되므로 관련당사자들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대간 부양규범 및 가족에 대한 규범이 혼재하고,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나므로, 자녀와의 동별거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구에 비하여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을 가질 것으로 짐작된다. 전통적 규범과 기대를 가지고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일 경우, 자녀와의 동거가 가족유대의 지속성 및 부양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Yoon & Lee, 1997)가 있다. 그런가하면 Joo와 Yoon(1993)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의 노부모 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노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자녀세대와의 동거가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노인의 거주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자녀와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고려되자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즉 생활만족도는 자녀와의 동별거 여부보다는 경제상태, 여가활동 등 노인의 의존성, 자원보유 정도 등을 나타내는 상황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의 경제상태나 여가활동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와의 동별거 여부는 외형적으로 노인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인의 여가활동과의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게 있어 자녀와의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우울감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peare와 Avery(1993)가 우울에 빠진 노인의 생활을 변화시키는데는 여가활동이 매우 유익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할 보였다. Crimmins와 Ingerenei(1990)은 고립되기 쉬운 노인생활은 여가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창조적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인의 노후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의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책적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노인의 여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단위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여가활동 유무와 거주형태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게 있어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우울감은 낮추었지만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는 없음을 시사했다. 성인자녀와의 동거와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시사점을 심층 탐색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보다는 여가활동, 경제상태와 같은 노인의 상황적 특성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자녀와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일수록,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고 우울감은 낮아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자녀와의 동거하느냐 여부보다 노인이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가활동 등의 여건 마련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Jung (2005)의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경제적 안정이 노후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후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배우자를 잃거나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급속하게 증가하는 단독가구 노인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 노인요양 지원 체계 마련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거형태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서술조사연구로써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K시에 거주하는 노인 37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거형태는 성인자녀와의 별거형태의 노인과 성인자녀와의 동거형태의 노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2$ -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자녀별거노인의 평균점수 2.74점으로 자녀동거노인의 평균점수 3.04점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599$ ,  $p=.008$ ). 우울감은 자녀별거노인의 평균점수 5.01점으로 자녀동거노인의 평균점수 4.87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2.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거주형태( $r=.211$ ,  $p<.001$ ), 교육수준( $r=.137$ ,  $p<.001$ ), 경제상태( $r=.426$ ,  $p<.01$ ), 여가활동( $r=.136$ ,  $p<.01$ )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우울감은 연령( $r=.127$ ,  $p<.01$ )과 정적으로, 교육수준( $r=-.148$ ,  $p<.01$ ), 경제상태( $r=-.303$ ,  $p<.01$ ), 여가활동( $r=-.072$ ,  $p<.01$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거주형태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I에서는 자녀와의 동거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델 II에서는 교육수준, 경제상태 및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와 경제상태 및 여가활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 III에서는 교육수준, 경제상태, 여가활동이 유의미하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나 여가활동과 경제상태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4. 대상자의 우울감은 거주형태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I에서는 자녀와의 동거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델 II에서는 경제상태와 여가활동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와 경제상태 및 여가활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 III에서는 경제상태와 여가활동이 유의미하게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여가활동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성인자녀와의 별거노인은 성인 자녀와의 동거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아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은 거주형태 뿐 아니라 노인의 경제상태와 여가활동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의 거주형태와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사이의 관련성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녀와 함께 사느냐 여부 뿐 아니라 종단적 관점에서 어느 자녀와 어느 때부터 어떤 이유로 인해 동거 혹은 별거하게



되었으나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횡단적 자료로 거주형태 결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종단적 자료의 수집을 통해 이러한 심층적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거주형태에 대한 기대, 선호 등에 따라 거주형태와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의 관련성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변수화하여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References

- Aquilino, W., & Supple, K. (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3-27.
- Cho, H. S., O, B. H., Yang, S. H., Lee, H. L., & Yiu, G. J. (1998).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elderly in a Korean rural community. *J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 2(10), 89-102.
- Cho, K. W. (2002). The study on the degree of life-satisfaction of the female single aged. *J of Welfare for the Aged, Autumn*, 85-125.
- Crimmins, E. M., & Ingerenei, D. G. (1990). Interaction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 Past trends, present determinants, further implications. *Research on Aging*, 12(1), 3-35.
- Ferrans, C. E., & Powers, M. J. (1985). *Quality of life index: development and impairment among the elderly in a U.S. Urban Community Act*. 241-255.
- Glenn, N., & McLanlhan, M. (1991). The Effects of offspr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2), 409-421.
- Jung, K. H. (2005). The 2004 survey on the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1, 49-65.
- Joo, S. S., & Yoon, S. R. (1993). A comparative study on the general health between the couple and single aged. *J Korean Geronto Soci*, 13(1), 55-62.
- Ki, B. S. (1996). The pilot study of short form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of Korean style. *Psychosomatic Med*, 35(2), 298-307.
- Kim, C. I. & Park, Y. S. (2000). Comparing health-related behaviors, food behaviors and the nutrient adequacy ratio of rural elderly by single-elderly families vs. extended families. *Korean J Comm Nutr*, 5(2), 307-315.
- Kim, H. R. (2003). Health status among community elderly in Korea. *J Korean Acad Nurs* 33(5), 544-552.
- Kim, J. H., & Jung, Y. M. (2001). A study on the health age, activity daily of living and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J Korean Geronto Nurs*, 3(1), 22-31.
- Kim, J. S., Lee, H. S., Jung, I. K., & Kuawk, D. I. (1998). Depressive symptoms of the spousal bereaved elderly. *J Korean Neurophych Asso*, 2(1), 85-92.
- Kim, M. Y. (1997). A study on the functional health status of living-alone elderly. *J Korea Comm Health Nurs Acad Soci*, 11(2), 94-105.
- Kim, S. M., Bae, S. T., Lee, C. W., & Cho, K. H. (1998). Relation between cognitive impairment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in the elderly of nursing home and community. *J Korean Geri Soci*, 1(2), 95-103.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Population of world and Korea*. KNSO.
- Lee, Y. J., & Kim, T. H. (1999).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J*

- Korea Geronto Soci*, 19(3), 79-93.
- Mancini, J. A., & Blieszner, R. (1989). Aging parent and adult children :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275-290.
- Moon, H. Y. (2000). *The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according to type of leisure ac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Park, H. S. (1993). *The effect of group cognitive therapy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Park, J. H., & Kwon, Y. C. (1989). Standardiz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MMSE-K for use in the elderly. Part II, Diagnostic validity. *J Korean Neuropsychiatri Assoc*, 28(3), 508-513.
- Pillemer, K., & Suitor, J. (1991). Will I ever escape my child's problems? Effects of adult children's problems on elderly parent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585-594.
- Speare, A., & Avery, R. (1993). Who helps whom in older parent-child families. *J of Gero*, 48(2), 64-73.
- Stones, N. J., & Kozma, A. (1980). Issues relating to the usage and conceptualization of mental health constructs employed by gerontologists. *Inter J of Aging and Devel*, 11(4), 269-281.
- Umberson, D. (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 Psychological consequence for both generation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64-674.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L.,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O.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 of Psych Res*, 83, 24-31.
- Yoon, C. H., & Lee, H. K. (1997). The effects of self-esteem, health status,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aged widows. *J Korea Geronto Soc*, 17(1), 289-304.
- Yoon, J. (1996). *Adult, elderly psychology*. Seoul : Chungang Aptitude Publishing.

- Abstract -

##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ccording to Living Arrangement in Elderly

Choi, Yeon-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ving arrangement,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371 elderly who has at least one adult child classifying two groups(living with children and not living with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Geriatric Leisure Activity Scale, Geriatric Life Satisfaction Scale, Geriatric Depression Scale, from March to December, 200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 In hierarchical regression, the elders who live with their children showed more life satisfaction than elders who lived by themselves. However, living arrangement showed no effect on the level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parents. Significant leisure activity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on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The elderly with no leisure activity report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when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they lived with their adult child.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further the various relationship among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ir preferences and expectations regarding inter-generational obligations

and living arrangements.

Key words :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Living arrangement, Elderly